



시민문화공간으로서 세종전통문화체험관 기획·운영 방안

이재민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최근 주목받는 '제3의 공간'

● 왜 제3의 공간인가?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R. Oldenberg)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세 가지의 공간 유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1의 공간은 거주 공간인 '집', 제2의 공간은 생업의 공간인 '직장', 제3의 공간은 심리적인 여유와 평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이른다. 올덴버그는 이 세 가지의 공간 중에서 '제3의 공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3의 공간은 심리적인 여유를 얻고 휴식을 즐기며, 사람 간 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공유공간으로 경쟁·목표 지향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유대감을 제고시키고, 회복하기 위한 동력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인 세종전통문화체험관

● 종교문화콘텐츠로서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의 개관

세종은행나무역사공원 주변 전월산 아래에는 '불교'문화를 주요 콘텐츠로 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이 조성되었다. 이 공간은 3층의 건물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사찰음식 체험실·어린이 열람실·상설 전시실·명상실 등으로 구성된 종교문화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정부·지자체·민간에서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되었으며, 조계종에서 운영을 담당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문화요소로서 종교문화콘텐츠는 이를 활용한 상품과 더불어 종교문화의 저변확대, 특히 대중화를 통한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서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림 1.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외부 전경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전통문화 교육공간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 시민들은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특정 종교인 불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콘텐츠의 구상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전통을 강조하다 보면 흥미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희적 요소가 담보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그림 2. 세종전통문화체험관 내부 상설전시실(좌), 사찰음식체험장(우)



● 힐링과 치유공간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의 주요한 주제는 ‘불교·전통·종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담고 있는 속성으로는 ‘치유·힐링’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불교의 명상과 참선이 개인에게 심리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문화공간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단순한 체험공간에서 벗어나 힐링·치유 공간으로 심리적 여유를 불러올 수 있는 콘텐츠 구현이 필요하다.

그림 3. 세종전통문화체험관 禪茶室(좌), 명상체험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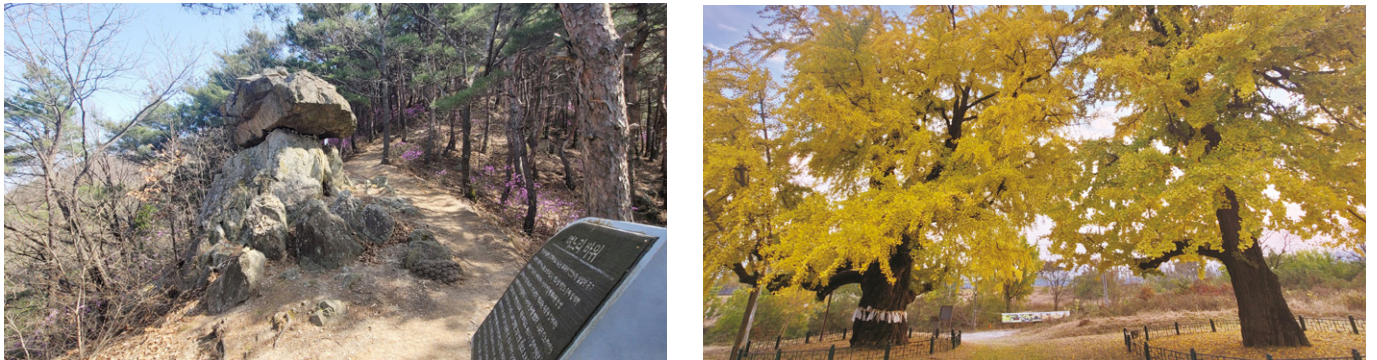


● 지역문화공간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세종시의 지역문화적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즉, 세종시가 함의하는 문화적 특수성을 오히려 담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테마를 담은 둘레길 형태로 인근의 ‘원수산-전월산-은행나무 역사공원’을 잇는 둘레길 형태의 공간형 콘텐츠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 길은 단순히 걷기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최근 주목받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기법의 적용을 통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변에 위치한 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주요한 문화유산인 불비상, 비암사, 구비문학 등을 연계·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단기적인 정책제안으로는 세종전통문화체험관과 인접한 세종은행나무역사공원과 200m 남짓 되는 오솔길 형태의 도보 길의 조성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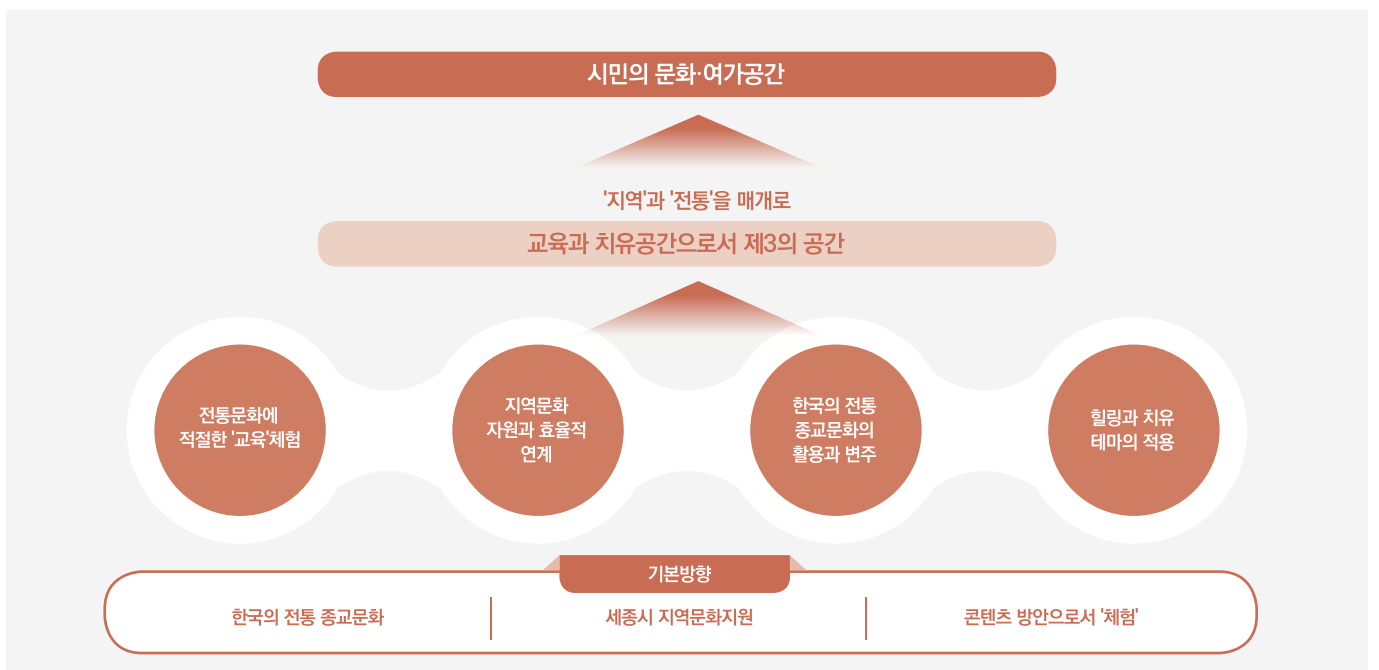
그림 4. 전월산 머느리바위(좌), 세종은행나무역사공원(우)



● 제3의 공간

단기적으로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지역'과 '전통'을 매개로 조성된 교육공간이자 치유공간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유익하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뒷마루에 앉아 차 한잔을 마시는 여유와 심리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제3의 공간'으로서 기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종교인만의 문화공간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꾸준히 방문할 수 있는 시민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림 5. 세종전통문화체험관 비전 체계도



자료: 이재민 외(2022), 시민문화공간으로서 세종전통문화체험관 기획·운영방안, 대전세종연구원